

처마에 매달린 달빛, 마당을 밝히는 별빛

가장 한국적인 밤, 전주야행 夜行

오는 8월12일~13일과 9월 30일~10월 1일

밤이 더욱 매력적인 계절, 한국의 여름과 가을이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전주에서는 특별한 여름 밤과 가을 밤을 준비한다.
 한옥이 빼곡이 자리한 전주 한옥마을은 이미 1천만 관광객의 명소가 된 지 오래.
 이제 전주 한옥마을의 생기 있는 낮 보다 더 의미 있는 밤이 펼쳐진다.
 각 도시가 품은 옛 건축, 유무형문화유산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시킨 문화재청의 야행프로그램 공모에 전주가 당당히 선정,
 8월 12일~13일과 9월 30일과 10월 1일 두 차례 전주의 밤을 새롭게 선보인다.



전주, 조선의 역사 품은 한옥마을 야경 셋

전주야행의 시작과 끝은 밤의 풍경을 담아내는 일이다.
 한옥마을 공간 안에 전주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유형 문화유산의 야경은 전주 그리고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그대로 비춘다.



경기전

태조 이성계의 위풍당당함과
 마지막 황손의 서글픔이 함께 서린
 전주 경기전의 야경은 차분하다.
 화려하지 않고, 단정하고 소박한 건축들과
 땅 보다 하늘과 더 가까운 몇 백년 수령의
 은행나무들은 밤에도 찬란하다.
 왕과 왕손 만을 위해 길을 낸 것만 같은
 좁은 대숲길의 밤 바람은
 도시 전주처럼 정갈하다.



오목대

경기전을 지나 오르막길을 오르면 한옥
 마을이 살포시 내려다보이는 정자를
 만날 수 있다. 이곳이 오목대이다.
 오목대는 태조 이성계가 승전을 자축하며
 건축한 문화유산이다.
 빛을 받은 오목대도, 오목대에서
 내려다보이는 한옥마을 야경은
 이미 유명하다.



한벽루

한옥마을을 옆 전주천의 물길을 굽어보는
 한벽루는 그 옛날에도 전주의 풍광,
 전주의 물길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다. 조금 가파른 절벽 위에 자리한
 작은 정자에 오르면 도심의 불빛 보다
 더 하얀 달빛이 기운다.

문화유산 공간의 품격 그대로, 한 밤의 야외공연

문화유산을 있는 그대로 무대 삼은 한 밤의 야외공연은 그야말로 유럽의 어느 곳 부럽지 않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한 곳들은 건축물 자체로도 이미 정평이 높은 곳. 옛 건축의 매력에 더해지는 특별한 공연들은 전주야행 최고의 선물이다.



전동성당 '천상지음'

영화 <약속>의 촬영장소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꼽히는 전동성당은 낮이고 밤이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전주한옥마을의 명소. 여기에 더해 전주야행에서는 천상의 목소리를 선사한다. 그레고리안 찬트 등 성음악연주회는 고성당에서 듣는 제대로 된 소리를 담아낸다. 실내공간인 만큼 서둘러 입장과 좌석을 챙기는 것은 필수.



전주향교 '산조의 밤'

우리 전통음악 산조는 '허튼기락'으로 외국의 재즈처럼 자유로운 음악을 말한다. 수령 5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굽어보는 향교 마당에서 펼쳐지는 산조음악회는 자유로움과 애절함이 뒤섞인 특별한 무대다. 아무나 연주해내지 못하는 실력파 연주자들의산조기락과 향교의 고즈넉함은 우리 음악을 만나는 최고의 조합이다.



전주천 '쪽배살풀이'

전주의 대표적 물길, 전주천은 그 역사와 전통은 물론 생태하천으로도 이름이 높다. 수달과 고니도 헤엄을 치는 전주천에 전주야행의 쪽배가 닷을 올린다. 쪽배에서 펼쳐지는 전통무용공연은 인위적인 수중공연이나 무대와 다르다. 자연의 물길과 한국의 몸짓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다.

몸을 던져 들썩들썩, 한 밤의 즐거움

사실 한옥마을은 20대들이 더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젊은 기운을 뿜어낼 전주야행의 '액티브' 한 프로그램으로 한 밤을 더욱 뜨겁게 달궈보자.



남부시장 '태조어진을 지켜라'

한옥마을 바로 옆 전주의 가장 크고 오래된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의 밤은 요동친다. 야시장과 더불어 전주야행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왕의 초상을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들의 한바탕 소동이 펼쳐진다. 어느 편에 서든 승자에겐 뜻밖의 기쁨이 기다린다.



전주천변 '강강수월래'

전주 한옥마을은 '한복의 성지'로도 유명하다. 형형색색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거닐었다면 전주야행에서는 돌고, 돌고, 돌아보자. 전주천변에서 펼쳐지는 수 백 명의 강강수월래는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장관이다.



풍남문 미디어파사드

원형대로 보존된 전주의 유일한 성문, 풍남문과 전동성당이 빛의 옷을 입는다. 음악과 함께 하는 찬란한 빛의 향연은 그 자체로 황홀하다. 빛의 움직임에 따라 어깨를 들썩여도 좋다.